



KIA 가을잔치행 Key는 마운드에

오늘부터 6위 SK·5위 한화와 격돌 임준혁·루키 박정수 활약에 기대

임준혁

박정수



‘호랑이 군단’의 가을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시험무대가 펼쳐진다.

7위 KIA 타이거즈가 6위 SK 와이번스, 5위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전력 테스트를 받는다. 4경기 차, 4.5경기 차로 앞서있는 두 팀과의 승부, 리빌딩을 목표로 한 시즌이던 성적도 포기할 수 없는 KIA의 2015시즌 성적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무대다.

KIA는 후반기를 3승3패로 열었다. 난적 삼성을 상대로 워닝 시리즈를 가져왔지만 역시 이번에도 상생세를 탈 수 있는 마지막 동력이 부족했다. 안방에서 치른 롯데와의 경기에서 9회 짜릿한 뒤집기 끝내기 소를 펼치며 2연승을 만들었지만, 주루 실수와 들쭉날쭉한 공격으로 2연패를 당하며 불붙은 분위기가 다시 싸늘하게 식었다.

5위 고지를 위한 도전. 마운드 운영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KIA는 28일 SK와의 홈경기 선발 투수로 임준혁을 예고했다.

에이스 양현종이 10승 고지를 밟으며 독보적인 평균자책점 1위(1.83)행진을 하고 있지만 어깨가 무겁다. 화·일요일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양현종이 하루 미뤄 29일 출격한다.

대신 지난 24일 롯데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 3회 일찍 물러났던 임준혁이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 앞선 등판에서 59개의 투구수만 기록했지만 4일 만의 등판이라는 점에서 임준혁에게 주어진 부담감이 크다. 한 주의 시작, 임준혁의 피칭에 따라 남은 경기의 불펜 운영도 달라진다.

임준혁은 휴식일이었던 27일 경기장에서 나와 홍우태 코치와 캐치볼을 하며 등판 준비를 했다. 이번 등판의 무게도 잘 알고 있다. 상대는 SK의 에이스 김광현 이기도 하다.

임준혁은 “지난 등판에서 제구가 좋지 못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잘 던져야 하는데 내가 잘못 했다. (4일만의 등판이라)

부담은 있지만 투수는 마운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팀을 위해 좋은 피칭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선발 로테이션에서 생존한 고졸 루키 박정수도 마운드의 키를 쥐고 있다. 박정수는 자신의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25일 롯데전에서 4.1이닝 2피안타 2볼넷 2실점으로 첫 패전이 됐다. 패는 남았지만 씩씩한 피칭으로 선발자리를 지켰다. 곱상한 외모와는 다른 욕심과 배짱이 박정수의 장점이다.

박정수는 “1회 불넷을 준 게 아쉽다. 최대한 길게 던지고 싶었는데 5회 손아섭 선배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 점도 많이 아쉽다. 불펜에서 선배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내가 부담을 더한 것 같아서 죄송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이닝을 책임지고 싶다”고 밝혔다.

선발 임준혁과 박정수의 이닝은 팀의 승패와 관련이 있다. 이들의 이닝은 불펜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임준혁·박정수가 변수가 될 마운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불펜 소금’ 김광수 “누군가는 던져야 하니까”

덕아웃 특·특

▲“진도는 빠르겠죠.” =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다. 26일 경기에 앞서 김기태 감독은 3연전 마지막날 만큼 빨리 경기를 끝내보겠다고 언급을 했다. 리드를 해서 9회말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농담 같은 진담도 덧붙였다. 김 감독의 공약에는 양팀 선발이 좋은 피칭을 하고 있는 스티븐(KIA), 레일리(롯데)라는 점도 작용을 했다. 그러나 두 선발을 앞세워 빠르게 전개되던 경기는 롯데의 리드로 9회말까지 가야 했다. 여기에 이범호의 동점포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연장 10회까지 진행됐다. 2-4 KIA의 패배로 막이 내린 경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3시간 29분이 소요됐다. 올 시즌 KIA의 평균 경기 시간은 3시간 13분을 기록하고 있다.

▲“알아서든 하는데 코치 필요 없겠네.” = 들쭉날쭉한 타격이지만 훈련만큼은 열정적인 타자들이다. 롯데와의 지난

주말 3연전, 썩든 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은 알뜰 방망이를 들고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25일에는 야수 최고참 김원섭을 필두로 김민우, 이범호, 김주찬, 신종길, 필이 일찍 발걸음을 했다. 타격코치가 등장하기도 전에 시작된 훈련. 필이 김원섭에게 공을 올려주기도 하는 등 고참들의 자율 훈련이 진행됐다. 시간에 맞춰 나온 홍세완 타격 코치는 “알아서든 하는데 코치도 필요 없겠다”며 웃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 KIA는 지난 24일 롯데전에서 9회말 터진 포수 백용환의 역전 끝내기 스리런으로 9-8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백용환은 주인공이 됐지만 9회초 수비 때 잇단 포구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백용환은 “지옥과 천국을 오간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내가 공을 잘 잡아야 했다. 다음 공격 때 교체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기회를 주셨다. 땅볼만 치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그라운드를 도

는데 소름이 돋았다”고 밝혔다.

▲“나 때문에 이긴 거네.” = 백용환의 한방으로 거둔 극적인 승리.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백용환은 “1-2루 상황에서 신종길 선배가 3루 도루를 해주셔서 편하게 칠 수 있었다”고 김원섭과 더불어 스티를 합작한 신종길에게 공을 돌렸다. 이에 신종길은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김원섭 선배가 불넷을 골라주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두 후배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원섭은 “나 때문에 이긴 거네?”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누군가는 던져야 하니까요.” = 불펜의 소금 김광수다. 한화와의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김광수는 최근 불펜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뛰면서, 안정된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16년차의 김광수는 지난 6연전에서 4경기에 등판을 해 3이닝을 책임졌다. 26일에도 김광수는 “누군가는 던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대기를 하겠다”며 맘을 흔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스USA 산체스, 세계태권도연맹 홍보대사



태권도 4단인 2014년 미스USA 니아 산체스가 세계태권도연맹(WTF)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27일 서울 종로구 효자로 WTF 서울본부에서 산체스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세계연맹은 2007년 미국의 메탈밴드 메가데스의 리더 데이브 머스테인, 2010년 미스 태국 풍자늑 칸크랍 등 외국 유명 인사를 선정해 홍보대사의 임무를 맡겨왔다.

산체스는 “세계태권도연맹 홍보대사가 돼 아주 영광스럽다. 가까이 말도록 하겠다. 태권도는 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하다. 태권도 정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미스 USA로 선발될 때에도 태권도가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지난해 미스USA에 뽑힌 산체스는 여덟 살 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현재 태권도 4단증을 가진 ‘태권 미인’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한국 양궁, 리우올림픽을 향해

세계선수권 예선전 시작

리커브 단체 8강펜 티켓 3장

오진혁·기보배 등 출전

한국 양궁 대표팀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다.

대한양궁협회는 2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예선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8월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95개국에서 627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한국은 리커브·컴파운드 종목에 12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 리커브 종목은 내년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는 만큼 특히 중요하다. 단체전에서 8강에 오르면 출전권 세 장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다.

남자부에서는 오진혁(현대제철)·김우진(정주시청)·구본찬(안동대)이, 여자부

에서는 기보배(광주시청)·최미선(광주여대)·강재영(경희대)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리커브 대표팀은 5월 열린 상하이 양궁 월드컵 1차 대회 5개 종목 중 4개 부문, 터키 안탈리아 양궁월드컵 2차 대회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광주하게 유니버시아드 5개 전 종목 결승에 올라 금메달 4개를 휩쓴 상생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지난 광주하게 유니버시아드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기계활’ 컴파운드 국가대표들도 출전 준비를 마쳤다.

남자부에는 김종호(중원대)·김태운·최용희(이상 현대제철)가, 여자부에서 설다영(하이트진로)·김은희(하이트진로)·최보민(정주시청)이 세계무대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체세현, 전국조정대회 싱글스킬 정상

광주체육고등학교 체세현이 싱글스킬 정상에 올랐다.

체세현은 25일부터 27일까지 장성군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3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조정대회 여고부 싱글스킬에서 8분06초49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같은 학교 김수정은 경량급 싱글스킬에

서 8분38초35로 골인, 호산고 손혜빈에 7초가량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서울이 차지했다. 서울은 금메달을 5개씩 휩쓴 한국체대와 서울체고의 선전에 힘입어 총점 199점을 획득,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김수녕, 국제양궁연맹 회장·규정위원 선출

올림픽 양궁스타인 김수녕(44)이 국제양궁연맹(WA) 회장 및 규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대한양궁협회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WA 총회에서 김수녕이 국제대회 경기규칙 등을 논의하는 회장 및 규정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으로 뽑혔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4년이다.

김수녕은 열일곱 살 때인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개



인전 은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은퇴를 반복하고 돌아온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도 개인전 동메달과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해 올림픽 금메달만 네 개를 따기도 했다. 시드니올림픽 남자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인 오교문 울산남구정 감독은 코치위원회의 위원으로 뽑혔다.

/연합뉴스